

반도체 수급난에도 車 생산·수출 호조... 내수는 10% ↓

산업부, 5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
현대차 울산 3·4·5공장 등 휴업
현대 13%, 기아 21% 등 생산량 ↑

수출 대수 58%, 수출액 94% 급증
내수 15.2만대 저조 '역기저 효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가 생산을 견인하는 모양새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다만, 내수는 전년도 개별 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달 자동차 생산은 25만6272대로 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했다.

◆지난달 자동차생산 25만6272대... 10.9% ↑

이는 차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증가를 이끈 결과다. 차반도체 수급난으로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3,4,5공장과 아산공장에서 총 열흘 휴업했고, 기아차 초하리2공장은 이틀, 한국G

〈2021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구분	'21.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1.1-5월	전년동기비(%)
생산(대)	256,272	△20.8	10.9	1,488,747	11.9
내수(대)	151,699	△5.8	△10.1	745,145	2.8
국산차(대)	123,813	△8.4	△14.5	615,610	△0.5
수입차(대)	27,886	7.5	15.8	129,535	22.1
수출(대)	150,894	△13.8	57.5	872,064	25.6
수출금액(억불)	34.9	△15.8	93.7	195.6	47.5
부품수출(억불)	18.2	△10.9	182.2	96.5	35.1

M 부평·창원공장은 5월 한달 간 차 생산을 절반 줄였다.

올해 1~4월 기준 세계 10대 차 생산국 중 전년 동기 생산 감소세가 큰 쪽으로 확대됐던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큰 생산 증감률(+52.2%)을 시현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 등에 기인한다.

현대차는 간헐적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이 있었으나, 신차 호조세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차 생산이 12.9% 증가했다. 기아차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판매부진 기저효과와 쏘렌토, 니로, K5 등 주력 모델의 수출확대 등에

로 차 생산이 20.7% 증가했다. 쌍용은 부품공급 재개에 따른 생산 활동 정상화로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했으나, 한국지엠은 공장 감산으로 -39.9%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엔 XM3, QM6 등 주력모델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내수 판매 부진으로 0.1% 소폭 감소했다.

◆수출 15만894대... 대수 57.5% ↑ 금액 93.7% ↑

지난달 자동차 수출 대수는 15만894대로, 전년 동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력모델 판매 호조로 57.5% 증가했다. 특히 수출금액은 93.7% 증가한 3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금액은 북미(14억2600만달러), 유

럽연합(6억6500만달러), 동유럽(4억6900만달러), 중동(2억5100만달러), 아시아(2억2700만달러), 오세아니아(2억2600만달러), 중남미(1억7000만달러), 아프리카(5500만달러) 순이다.

수출액 증가는 친환경차·프리미엄 브랜드(제네시스)·신차(GV70, 쏘렌토 PHEV 등) 수출 호조세와 SUV·CD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비중 확대가 크게 기여했다. 모델별로는 니로(+12.8%), 스포티지(+74.8%)의 판매 증가, GV70(2021.3월~) 쏘렌토 PHEV(2021.5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수 15만1699대... 개소세 역기저효과로 10.1% ↓

지난달 내수 판매는 15만1699대를 기록했다. GV70과 K8 등 신차 효과가 있었고, 친환경차 판매가 56.5% 증가했음에도 전년 동월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으로 10.1%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내수 판매는 역대 5월 중 3위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도 전반적인 공급량 감소로 14.5% 감소한 12만3813대가 판매됐고, 수입차는 독

일계와 일본계 판매 호조로 15.8% 증가한 2만7886대가 팔렸다.

◆친환경차 판매... 내수·수출 모두 증가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한 2만6983대, 수출은 36.5% 증가한 2만7607대로 5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가 월간 역대 최대 판매(9223대)를 기록하며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8%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 금액은 수출 대수보다 더 크게 증가해, 친환경차 수출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비중의 19.0%를 차지한다. 수출금액은 하이브리드차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출금액 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며 수출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부품 수급 차질로 일부 공장이 간헐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 내 소비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82.2% 증가한 18억2000만달러를 달성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규직 채용 기업에 연 최대 900만원 지원

(1인당)

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공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28일부터 접수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추

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9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도 늘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청년이 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

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유사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1

민노총

1만770원 vs 8720원

경영계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이번 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인상안을 들고 나온 민주노총은 시급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약 2000원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초 4개 사업장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가 위원들 간 상견례 차원이었다면 2차 회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돼 3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3차 회의 때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사는 내

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소 1만원 이상을 예견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 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위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안정적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지난해 최초 2.1% 삭감안을 요구했던만큼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만770원과 올해 수준인 8720원 사이 약 2000원의 격차를 놓고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디지털전환·탄소중립에 5년간 1.3조 투입

정부, 국가표준기본계획 심의·의결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발굴했고, 민간 의뢰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

터블(기계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

또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스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편의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작년 곤충 판매액 414억

작년 국내 곤충 판매액은 4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식용곤충이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고, 곤충 관련 업체·농업인도 10% 이상 많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지자체를 통해 올해 3월~5월까지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이 51.6%를 차지해 가장 컸고, 이어 사료용 곤충(22.5%), 학습·애완곤충(10.7%), 기타(15.6%)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